

# 12월의 양돈관리 포인트

## -호흡기 질병 예방에 힘써야

**겨**울철에는 보온을 위주로 양돈장 관리가 이루어지므로 돈사가 밀폐되게 되고 환기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. 따라서 이로 인한 호흡기 질병이 문제될 수 있다. 또한 계절적으로 유행하게 되는 자돈 설사병의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할 때이다.

### 1. 겨울철 포유자돈 사고율을 줄이기 위한 관리

포유중 자돈의 폐사 원인으로는 설사와 압사가 대표적이며 허약 및 기아로 인한 폐사 또한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. 특히 겨울철의 경우 보온관리가 부실할 때 한냉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설사의 발생률도 높아지며 높은 폐사율을 보이게 된다.

포유자돈의 생존율을 높여 이유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모돈이 건강해야 하고, 합리적인 분만틀 시설이 갖추어 져야 하며 환경관리 및 사양관리, 그리고 방역과 같은 기본관리 사항이 철저히 이행되어야 한다.



이재춘 원장

(한별 피그 클리너, 한국양돈컨설팅그룹)

### 1) 모돈의 바디컨디션 관리

- 겨울철에는 낮은 환경온도로 인해 체온유지를 위한 요구 열량이 증가하게 된다.

따라서 다른 계절에 비해 사료 요구량이 증가하게 된다.

- 사료량 조절은 주 1회 주기적으로 실시한다.
- 사료의 증량 급여를 통해 모돈의 바디컨디션이 양호하면 정상적인 생시체중을 갖는 자돈을 얻을 수 있게 되고 허약으로 인한 자돈 폐사율을 줄일 수 있다.

### 2) 모돈의 음수량 점검

- 고장난 닛플이 있는지 수시로 점검한다. 특히 급수배관이 추위에 노출되어 얼지 않게끔 대비를 한다.
- 모돈의 닛플은 분당 1.5ℓ 이상의 양으로 충분한 물을 공급해 줄 수 있어야 한다.
- 급수배관은 직경이 큰 것일수록 원활하게 물이 흐르게 되므로 충분한 물을 공급하게 된다.
- 최근에는 임신돈에 닛플 없이 1일 3회 정도 급수를 해주는 관리방법도 효용성이 좋음이 입증되고 있다.

### 3) 정기적인 모돈의 클리닝

- 모돈 클리닝의 목적은 모돈 자신의 만성 질환을 예방, 치료하고 따라서 건강한 자돈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다.



▲자돈 주변의 온도는 출생직후 30°C, 1주일 후 27.5°C, 그리고 이유 할 때는 22°C~25°C 정도로 유지한다.

- 모돈의 클리닝 시기는 연 2회 환절기 기본 클리닝을 실시하고 매 분만시, 즉 분만사 입식부터 이유시 까지 꾸준히 예방 수준으로 항생제를 첨가한다.

#### 4) 분만틀 시설

- 분만틀 바닥은 항상 건조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배수가 잘 되어야 하며, 자돈의 잠자리로 모돈의 오줌이나 급수기의 물이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.

- 자돈이 휴식을 취하는 부근에는 자돈이 추위를 느끼지 않도록 보온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압사 및 설사의 발생을 줄일 수 있게 된다.

- 분만틀에 설치하는 보온시설로는 보온매트, 보온등, 보일러 등을 들 수 있다.

#### 5) 온도관리

- 분만사의 실내온도는 돈사 단열 정도에 따라 20°C~22°C 범위로 유지를 한다.

- 돈사단열이 부실할 경우 난방비가 증가하며 균일한 온도관리가 어렵다.

- 자돈 주변의 온도는 출생직후 30°C, 1주일

후 27.5°C, 그리고 이유 할 때는 22°C~25°C 정도로 유지한다.

- 분만 당일에는 모돈의 뒷 부분에도 보온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신생자돈을 추위로부터 보호해 준다.

#### 6) 섯바람 차단

- 초당 0.1m의 속도에서 0.6m로 풍속이 증가할 경우 체감온도는 4°C 저하되는 것과 같다.

- 섯바람으로 부터 자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1차로 돈사 외벽, 출입구의 틈새를 밀폐하고, 그 다음 자돈주변에 보온상자와 같이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바람막이를 설치한다. 또는 자돈의 휴식 자리 부근의 분만틀 칸막이를 밀폐시킨다.

#### 7) 백신접종

- 겨울철 포유자돈의 사고율과 관계가 높은 원인으로는 바이러스성 설사가 대표적이다.

- 자돈의 설사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돈에 충분한 면역이 이루어져야 한다.

- 그 결과 생산된 면역항체를 초유와 유즙을 통해 자돈이 지속적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 자돈은 감염성 설사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.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이 모돈에 대한 장염백신의 철저한 접종이다.

- 장염백신으로 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 TGE, PED, 클로스트리듐, 그리고 대장균 백신 등이다.

- 일반적인 접종시기는 분만 5~6주전에 1차 접종, 그리고 분만 2~3주전에 2차 보강접종을 하는 것이 추천되고 있다.

(접종시기는 백신에 따라 또는 농장의 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다)

## 2. 호흡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일반 사양관리

호흡기 질병은 주로 육성단계 이후에서 문제가 되나 최근에는 이유자돈(60일령 이내)에서도 문제가 되는 농장을 간간히 볼 수 있다. 호흡기 질병 예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반 사양관리로는 온도, 습도 그리고 환기관리를 들 수 있다.

### 1) 온도관리

- 10도 이상의 일교차는 돼지의 항병력을 저하시켜 질병 감염을 용이하게 한다.

- 따라서 각 성장 단계별 적정온도를 기준으로 최고 최저온도의 차가 10도 이내의 범위로 유지되도록 관리를 해주어야 한다.

### 2) 습도관리

- 습도가 60% 이하일때 호흡기 질병의 발생률이 높아지므로 돈사내 습도는 60% ~ 80% 사이로 유지되도록 관리를 해준다.

- 소독횟수를 늘려준다. (최소 주 3회 이상, 적정횟수는 1일 1회, 질병발생시 1일 1회 이상)

- 돈사내 통로에 물을 뿌려준다(특히 야간에). 이때 소독약을 희석한 물을 뿌려주면 좋다.

### 3) 환기

- 돈사를 밀폐시키므로 돈사내 가스 발생량 증가(환기의 필요성 증가).

- 습도저하로 돈사내 먼지 발생량 증가.

- 가스과 먼지의 증가로 인한 스트레스 및 호흡기 질병 등으로 증체율 저하 및 폐사 위험이 높아진다.

- 돈사에 대한 환기는 사실 매우 어렵고 중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## 4) 기타 사양관리

- 빈 돈방의 수세, 소독 후 돼지 입식을 철저히 준수한다. (오염된 돈사 및 돈방에 어린 돼지가 입식 되면 질병의 피해가 증가 된다. 특히 밀폐된 겨울철에 돈방 소독이 안될 경우 호흡기 질병의 발생률이 높아진다.)

- 밀사로 인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한다.

- 밀사는 돈사내 병원균의 수를 증가시키며 위축돈의 발생률이 높아진다. 따라서 증체율 저하 및 질병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.

## 3. 차단방역

대부분의 전염성 질병의 발생은 주로 외부에서의 병원체 유입이 문제되므로 외부에서의 질병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역대책이 농장마다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.

- 출하차량의 소독철저 (가능한 농장내 출입을 차단)

- 농장 울타리 밖으로 출하대 설치 (농장내 출하차량 및 인원의 출입방지)

- 출하대 주변 및 농장 출입구 진입로에 생석회 도포

- 돼지 구입시 위생적인 측면을 반드시 고려한다.

- 외부구입돈의 적응 및 질병유무 파악을 위한 격리사 설치 (특히 대규모 양돈단지의 경우 필수적임)

- 농장내 인원 및 외부 인원의 출입시에도 소독을 생활화 한다. 특히 농장 출입구에 차량 및 발판 소독조 등을 설치하고 신발장을 설치하여 인원의 출입시에 신발을 갈아 신고 다닐수 있게 한다.

- 돈사 내외부 소독을 규칙적으로 실시 (1일 1회 이상) **양돈**